



신비한 소금커피

소금은 커피 속의 탄닌과 미네랄의 결합을 방해

며칠 전 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소금이 들어간 커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소금이 들어간 커피는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번에 소금커피의 효능에 대한 유튜브 한 동영상과 보고 나서 승리신문 구독자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소금커피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커피는 설탕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솔트 커피'라는 용어가 통용될 정도로 소금커피는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기 음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사실 소금커피는 11세기 초 아라비아 무역상들에 의해 터키에 전파되어 이슬람교도들이 널리 음용했다고 한다.

쓴맛을 억제하고 음식의 맛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드라지게 하는 힘이 있는데 2015년 연구에서 단맛과 쓴맛을 느끼게 하는 화합물에 소금을 넣으면 쓴맛이 사라지고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커피의 쓴맛은 한약과 달리 상당히 복합적인데 카페인이나 클로로겐산의 양에 따라 쓴맛의 깊이가 달라지고 커피 원두를 어떻게 건조하고 볶았는지, 심지어 원두 분쇄방법에 따라 쓴맛을 내는 성분 조합이 변한다고 한다. 이러한 커피의 복잡한 쓴맛을 소금은 잘 억제한다.

식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안전할까? 이 말

은 무슨 뜻이냐면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음식 속의 철분과 마그네슘, 칼슘, 아연 등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보다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미네랄과 결합되는 속도가 무려 300배나 빠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후 한 시간이 지나면 섭취한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과 철분이 체내 흡수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커피를 마셔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커피에 소금을 넣어서 마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커피 속의 탄닌 성분과 음식 속의 미네랄이 결합하는 것을 소금이 방해한다고 하니 앞으로 식후에 달콤한 커피가 생각난다면 소금커피를 꼭 마셔보자.

그리고 소금커피는 이 외에도 좋은 점들이 있는데 소금이 커피의 맛을 훨씬 가볍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특히 구수한 향의 커피에는 설탕의 단맛이 가미되는 것보다, 소금을 넣음으로써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을 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소금을 설탕 대신 커피에 사용하게 되면 당 섭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소금의 칼로리는 무려 "0"임) 또한 나트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신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그렇다면 커피에 소금을 왜 타서 먹을까? 곧 소금을 타서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상식적으로 커피에서 짠맛이 나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평소 소금을 넣지 않고 마시던 커피보다 더 맛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 것이다. 소금이 커피 특유의 쓴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달콤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도 소금을 살짝 흡뿌린 뒤 마시면 더 달콤하고 감칠맛나는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소금이 커피를 더욱 맛있게 하는 비밀은 '맛의 대비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의 맛에 다른 종류의 맛이 약간 더해지면서 원래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효과이다. 이것은 여름에 수박을 먹을 때 소금을 약간 뿌려서 먹거나 토마토를 먹을 때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 먹으면 더욱 달고 맛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면 되겠다.

이뿐만 아니라 소금(염화나트륨)에는



해인설화의 구조분석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해인설화의 공간적 구조는 인간계와 용궁으로 양분된다. 그런데 두 세계에서 등장하는 중심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차이가 난다.

인간계	용궁
해인을 얻은 사람 - 중(도)사 - 정만인 (특별한 인연이 없음)	용왕 - 아들(딸) (혈연관계)

인간계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세 인물 사이에는 서로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 거의 없다. 이들은 특별한 인연이 없었거나 모르고 지내던 사이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인(異人)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묶을 수 있는 중(도)사와 정만인 사이에서도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가③에서 해인사를 장건한 주지 스님과 그의 상좌 중이었던 정씨 성을 지녔던 인물이 등장하는 일이 특기할만하다.

인간계의 이와 같은 사정에 비해, 용궁에서 등장하는 두 중심인물은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다. 속된 세계인 인간계에서는 등장인물도 각자 독립된 존재로 그려져 있어 공통의 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성스러운 세계로 상징되는 용궁에서는 일정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동일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들의 관계가 부각하여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해인을 둘러싼 갈등

해인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에 의해 빚어지는 갈등도 용궁과 인간계가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용궁	
용왕 ↔ 아들(딸)	해인이 자식의 목숨보다 중요하냐? 은혜를 갚는 사적인 차원, 해인의 존재와 사용법을 가르쳐 줌.
해인(나라의 보물)	공리(公利)
사육(私慾)	사육(私慾)

인간계		
해인을 얻은 사람	중(도)사 ↔ 정만인	공리(公利)
사육(私慾)	공리(公利)	사육 또는 공리

용왕과 아들(딸) 사이에는 해인을 주지 않으려는 입장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있다. 용왕은 용궁의 보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상에서 온 사람에게 해인을 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린다.

반면 용왕의 아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식을 표출하면서까지, 자기 가업은 개인적인 은혜를 지상에서 데리고 온 사람에게 해인을 줌으로써 갚으려 한다. 이처럼 용왕국(龍王國) 왕자에게 주어 해인은 용왕국을 다스리는 성스러운 보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물건이든지 마음대로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된다. 따라서 왕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은혜를 갚는 일에 해인을 선택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한국의 보물, 해인<16>

인간계에서는 등장인물들 사이에 해인을 사용하는 자 세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진다. 용궁에서 용왕국 왕자의 사적인 의지에 따라 해인을 받아온 지상의 인물은 기껏해야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로만 해인을 사용한다.

반면 중(도)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는 해인을 사용하지 않았고, 해인사(海印寺)라는 사찰을 짓는 데에 사용한다. 물론 해인사라는 건축물만 지었다는 점에 있어서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해인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던 사람에 비해서는 공적인 일을 위해 해인을 사용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자기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인을 가지고 남해(南海)의 어떤 섬에 숨어 있던 정만인은 아직 그가 해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나라의 보물을 훔쳤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정만인이 해인을 사적인 일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짐작이 깔려있고, 장차 해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해인이 공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깃들여 있었다.

또 해인을 처음으로 얻은 사람과 중(도)사 사이에는 해인을 주지 않으려는 입장과 빌려겠다는 입장 사이의 갈등이 있다. 그러나 이인(중, 도)사와 이인(정만인) 사이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다. 다만 가③에서 상좌 중이 주지 스님이 가지고 있던 해인을 훔쳐갔다는 예외적인 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그다지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해인설화는 어느 날 중(도)사가 나타나 해인을 당연히 가져갔고, 해인을 절을 짓는데 한번 사용하고 나서 어딘가에 숨겼는데, 또 다른 이인인 정만인이 나타나 다시 간추었으나 언젠가 또다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인에 대한 독특한 인식들

거의 모든 해인설화에는 해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다만 이인(異人)이 천기(天機)를 보고 알았거나, 그냥 알고 찾아왔다는 식의 설명이 있을 뿐이다. 이는 정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인이 해인사에 간추어진 해인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다만 알았다는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이인의 신비성을 힘주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이인의 특이한 능력으로 해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여 해인을 찾는 과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 구조에 따르면 이인(異人)이 되는 과정도 설명할 수 없다. 이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어떻게 이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해인설화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성향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과론적인 설명이 없거나 갑자기 이야기의 맥락이 건너뛰는 해인설화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④에서 해인을 얻은 영감이 가만히 생각하니 해인을 자기에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진해서 나라에 바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가⑤에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주머니에서, 십년 후가 되어 임자가 나타나니 갑자기 동그란 것이 주머니 안에 만져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돌연히 등장한 서산대사가 그 동그란 것이 바로 해인도장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알고만 있으라."라고 말해주었다는 식이다. 가⑥에는 서산대사가 일본에서 해인을 가지고 조화를 부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의 원래 주인공은 사명당이며, 『임진록』에 자세히 이야기된다. 또 이 이야기에서 화자(話者)는 해인이 "이거방이 마느라 한테 있었다, 어데 있었다 이커는데"라고 말하며, 이승만 정권 때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던 이기봉과의 관련성도 잠깐 언급한다. 그만큼 해인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며, 해인이 현실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 방식은 설화가 지닌 고유한 특성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려는 태도가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이야기 방식과 대조적으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설명을 시도하는 해인설화도 있다. 가⑦은 해인사가 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연못이었다고 서두를 꺼낸다. 그리고 그 못에 사는 용(龍)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절을 세우려 노력했던 도사(叢)가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은 용의 조화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중의 술법이 용보다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⑧은 이야기가 진실임을 알리기 위해 "탄성(嘆息) 사는 이 진사"라고 구체적인 지명을 빌려 사실임을 강조한다. 또 중이 찾아오는 대목에서도 "진주 달성 땅에 찾아왔다."라고 하여 동일한 수법이 사용되었다.

가⑨에서는 주인공의 꿈에 "허연 노인"이 나타나 내일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용왕국 왕자가 찾아온다는 일을 꿈을 통해 미리 길조를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개가 찾아오자 "경주 최가의 시조가 이 개가 바로 손님이라고 생각하여 별당에 따로 개집을 지어 주고 잘 대접했다는 것이다.

가⑩는 강아지가 갑자기 나타나는 과정을 "안개가 끼고 잠시 후에 걷히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다."라고 서술하여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변신 과정도 "안개가 끼면서 강아지가 짙으며 재주를 세 번 넘사 계집애로 변했다."라고 말하며, 비일상적 이야기도 일정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거나 특별한 행위로 인한 일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대체로 해인설화는 인과론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해인설화는 해인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살던 어떤 사람에 의해 지상에 출현하게 되었으며, 해인사를 짓거나 생활용품을 나오게 만드는 기능을 행했다가 숨겨졌지만, 정만인이라는 이인이 해인을 찾아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바다의 어느 섬에 감추어져 있으며, 곧 이 땅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 지난해 소재목 (4. 성경에 무지했던 예수)를 (3. 성경에 무지했던 예수)로 숫자 표기를 바로잡습니다.

4. 선악과와 창조 신화

성경 해법의 비결을 알아야 비성경적인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날 인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흠을 빚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여자 해와를 만들었다는 창조 신화를 그대로 믿고 있다.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인간 창조의 과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이 성경의 비밀을 풀지 못하는 것은 성경 해법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일점일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육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진자 구세주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 해법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그 말씀에 대응하는 짝의 말씀을 찾아서 맞추어 볼 줄 알아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자비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흠으로 빚어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미리 알고 에덴동산 안에 선악과 나무를 제거하거나, 뱀과 같은 악의 존재를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해와는 물론 그의 자손들이 죽을

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에덴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또 실사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운명에 처했다면, 즉시 생명이 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여, 그들이 죽지 않게 했어야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오늘날 하나님보다 못한 죄인된 인간들도 자기의 죄악이 어떤 자식에게 방안에 먹음직한 독약이 묻은 음식을 두고 먹지 말라고 말만 하고, 밖으로 일보러 가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또 만약에 그 독약이 묻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 할 때 해독할 수 있는 생명과 일이 있다면,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서 먹여 아이를 살리려 할 것이다. 인간도 이러하게 할 하나님이 그가 만든 인간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받도록

저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사라 할 수 없다.

인간과 만물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육체라는 몸속에 마음이 존재하며, 마음의 작용에 따라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 곧 물질적인 육체속에 마음이라는 영혼이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은 곧 신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다. 인간을 영적 동물이라 하는 것은 만물 중에 최고의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다. 인간의 몸과 마음

의 관계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은 고장난 불량품이 된다. 인간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 1장 15절에는 욕심과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생명이며,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의 신이라면 인간 속의 양심이 하나님의 신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욕심과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것은 욕심과 죄가 곧 마귀요 사망의 신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속성의 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

는 복합체의 신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한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이요, 마귀요, 사망의 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엔트로피 현상으로 열평형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사망의 영이요, 사망의 신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라는 주체 의식이 되는 마귀 신을 이기지 못하는 한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우주 만물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기다려 왔다.* (다음호에 계속)

一行 徐輔睦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5】